



宗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順天金氏宗報

제 46 호 2005. 12. 28 (수)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발행인: 김종식/편집인: 김봉환/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부광빌딩 2층/전화: (02)400-2501~2502/FAX: (02)400-2505

乙酉年 秋享 大祭 奉行 (주암골 가득 메운 300여 後孫들)



2005년 乙酉年 秋享 大祭가 11월 2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始祖墓域에서

鍾植 中央宗親會 會長을 비롯하여 地域 宗親會長 각 派宗會長등 全國 京鄕各地에서 온 300여명의 宗親들이 敬虔하고 嚴肅하게 祭禮를 奉行하였다

특히 大邱 宗親들은 빠스를 貸切하여 團體 參拜를 하므로 他 地域 宗親들의 龜鑑이 되었다

또한 평소 孝誠이 至極하기로 널리알려진 한화구름 會長 升淵 宗親은 參拜宗親들에게 贈物을 下賜하고 始祖墓域과 追慕祭壇에 弔花를 獻花하므로 崇祖敦睦하는 正신을 몸소 實踐 하였다

특히 今年에는 去年에 비해 祭需에 精誠을 다한 흔적이 役役하므로 祭官들로부터 칭찬이 자자 하였다

이날 鍾植 中央宗親會 會長은 同原齋 三門을 早速히 改築하고 宿願 事業인 宗親會館 建立에 心血를 기울리겠다고하자 宗親들은 우레와같은 拍手로 和答 하였다

執事分定: 始祖墓域 初獻官: 學元 追慕祭壇 初獻官: 性勤
 亞獻官: 相默 亞獻官: 炳鮮

終獻官: 高遠

終獻官: 仁燮

執禮: 道淵 陳設: 允煥 謁者: 晉 贊引: 商錫

奉香: 商心 奉爐: 炳模 執事: 桓奩 山神: 東均 山祝: 奎一



16期 定期總會

中央宗親會 定期總會가 2005年 11月 1日 전남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同原齋 嘉樂堂에서 中央宗親會 鍾植 會長을 비롯한 會長團과 顧問및 元老宗親, 200여명의 代議員들이 參席한 가운데 和氣靄靄하게 進行 되었다

이날 鍾植 會長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宗親들의 뜨거운 聲援에 힘입어 大同普 事業을 마무리하고 世蹟總覽 發刊事業도 순조롭게 進行되고 있으며 大學生講座도 어느새 16년 동안 도도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음은 他 宗親會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만의 自尊心이이니 어려운 때일수록 뭉치고 또 뭉쳐 열킨 실타래를 풀듯 難題를 풀어 가자고 力說하였다.

會議는 式順에 따라 相容 常任副會長의 司會에 의하여 鳳煥 幹事長의 業務報告 에이어 景南 監事의 監查報告, 2005년도 決算및 2006년도 豫算案과 會則 改正案을 上程하여 深度있게 審議하고 통과하였다.



이어 各地域 宗親會서 推薦한 受賞者들에게 感謝牌, 功勞牌, 孝行牌 등을 授與 하였다.

功勞牌: 金鳳煥

感謝牌: 金哲宇, 金東均, 金秉準, 金商珉, 金相實, 金甫淵, 金酉錫

孝行牌: 金在烈, 金賢熙, 魯仁淑

香料代와 獻誠金

중앙종친회 회장 金鍾植 100만원
 상임부회장 金相容 50만원
 새직총람간행위원장 金昌淵 100만원

金行燁: 5만원 金成源: 5만원 金默: 5만원 金東泳: 5만원
 金德守: 3만원 金奎日: 3만원 金榮熙: 3만원 金道淵: 3만원
 金承淵: 3만원 金秉準: 3만원 金東福: 5만원 金賢熙: 5만원
 金相允: 5만원 金利丞: 3만원

신천공과교양총치회: 10만원

순천종친회김학순: 10만원

협천공과종친회: 10만원

보령종친회: 10만원

절재공과회장: 5만원

부산종친회: 10만원

안동종친회(김봉태, 金중삼, 金東성, 金鍾鉉, 金東得, 金潤煥, 金鳳煥): 15만원

횡성공과회장金高遠: 10만원

목사공과종친회: 10만원

대전충남종친회: 10만원

金炳壽: 3만원 金碩載: 5만원 金尙福: 5만원 金正雄: 10만원

金大錫: 5만원 金志燮: 20만원 金景南: 20만원 金鍾三: 3만원



국담정사(菊潭精舍)위패실 준공

일천만원 건축비 전액 昌淵宗親이 회사

판사공 17대 손 창연 종친

우리 順天金門의 최대 집성촌인 이곳 九潭은 양경공 휘 승주(承柱) 할아버지의 장자(長子)이신 국담(菊潭)공의 12위의 제향을 받드는 곳이다. 2004년 안동 종친회 주관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후손(後孫)들로 약 4천만원의 성금을 모아 수리를 마친 곳이다.

매년 제향을 모실 때마다 묘소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어 참석한 제관들의 불편은 물론 선조님에 대한 불경스러움이 적지 않아 위패를 모시기로 뜻을 모아 오던 중 판사공 17대손 창연(서울 거주) 이 쾌히 건축비 전액을 회사함으로써 두 달여 공사 끝에 2005년 시제 일에 맞추어 고유를 올리게 되었다.

집기류와 연단, 마이크시설, 침구류는 물론 종기 주련 등 부대시설도 이번 기회에 새것으로 마련했으며 조경을 위해 창연종친이 큰 느티나무1, 단풍나무 2 그루도 식수하기로 약속하셨다.

남다른 승조정신이 이렇듯 흩어진 종친들을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런 위선 사업은 앞으로도 많을수록 좋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는 창연종친의 승조정신을 본받아 크든 작든 조상의 위선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집사분정

묘전 초헌관 한철
아헌관 병환
종헌관 지연
집례 도연
축관 동성

감사패

공로패 동성
감사패 창연
감사패 동영(서울)
감사패 동영(대구)
감사패 오현
감사패 동표

위패 초헌관 한철
아헌관 창연
종헌관 지연
집례 동석
축관 동성



원수는 원수를 부를 뿐이다

어는 동네 정자나무 그늘에서 두 노인네가 장기를 두다 그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한 수를 물리자하고 다른 한사람은 안된다 하여 승강이가 벌어진 것이지요.

그까지 한 수 물리는 것이 뭐 있냐며 끝내 고집을 부리는 노인네를 밀쳤는데 그만 상대 노인이 뒤로 넘어지며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고의가 아니라지만 사람을 밀쳐 죽었으니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노인 집에서 쫓아와 어떤 일을 한다하여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때민 노인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마침 장터에서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아들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나?"

"그 까짓 것 염려하지 마시구 이리 좀 나오세요."

아들의 말을 듣고 사랑 뒷마루로 나왔더니 아들이란 놈 한다는 것이 아버지를 새끼로 기둥에 칭칭 묶더니 어디론가 향하여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만에 죽은 이의 큰 아들인 상주의 산발을 한 머리채를 잡아 끌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를 기둥에 묶인 제 아버지 앞에 세우고는 어디서 났는지 도끼 한자루를 가지고 그의 손에 쥐어 주며 말했습니다.

"죽여라."

아무리 아버지를 밀쳐 죽인 원수지만 감히 도끼를 쳐들 수는 없는 노릇, 상주가 어이없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부모를 죽인 원수는 不俱戴天이라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 하지 않았나. 너는 네 아버지 원수를 갖고 그러면 네가 세발짝 움직이기 전에 내가 널 죽여서 또 원수를 갖고 네게 어린 아들놈이 있으니 그 놈이 커서 널 죽여 원수를 갖고 그런 거지 뭐."

이야기를 듣고 가만 생각하던 상주는 도끼를 저만치 던져 버리고 기둥에 묶인 노인의 새끼줄을 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갈 원수여서 그랬지 어르신께서 무슨 허물이 있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인의 한 구절을 생각하듯 이런 미담이 있는가 하면 항간에는 비밀비재하게 가정이나 이웃 간의 불화나 더 나아가서 문중사로 사소한 시비에 휘말려 감정대립에서 원한으로 상호 불복하고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가 허다함을 접할 수 있을 때마다 전해져 오는 우리의 옛 이야기지만 깊이 생각해 볼만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는 원수를 부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내가 원수를 갚아 속이 시원할 지 몰라도 원수는 또 한 번의 원수를 부르는 법, 결국 원수를 갚은 자신이 원수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어렵고 힘겹더라도 누군가가 나서 고리를 끊지 않으면 원수 갚은 일은 계속해서 이어지며 모두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相生과 共滅은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 어느 편을 택할지는 우리 모두의 몫이니 항상 지혜로운 사랑과 관용으로 생활화되기를 이 해가 가기 전에 다 같이 자성할 지이다.



節齋 金宗瑞

절재 김종서의 忠節 재조명

(상임고문) 金榮熙

2. 다시 忠節의 精神을 기리며

절재 김종서는 그 시대 현실에 타협하거나 당로자(當路者)에 추세(趨勢)하지 않는 충직(忠直)으로 그의 생애를 일관하였다.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비록 다소의 곡절이 있었으나, 그래도 세종·문종 등 현군을 만나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득의의 삶이었다. 곧 국록(國祿)이나 축내는 나약한 부유(腐儒)로서가 아니고, 한 국가를 떠받치는栋梁기재(棟梁之材)로서 진유(眞儒)의 면모를 후대까지 보여주었다. 또한 유학에서 일컫는 “임금은 예로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서 섬긴다”²⁸⁾는 바람직한 “군신상(君臣像)을 뚜렷이 실현해 보였다.

그러므로 그의 충의지심(忠義之心)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으니, 그가 안평대군 소장의 <몽유도원도>에 붙인 찬시(讚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생은 金石이 아니니
百世도 번개처럼 달아난다네
어떻게 하면 선도나무 캐내어서
궁전 뜰 안에 옮겨 심고
저 세 번이나 흠친 아이 꾸짖으며
만세토록 우리 임금께 바칠까²⁹⁾

절재는 그림 속의 선도를 보고서 곧 세종의 건강을 생각한 것이다. 과로에 시달려 병이 날로 깊어지는 ‘우리 임금(吾君)을 떠올리며, 전실상의 선도를 바쳐 천년 장수를 누리도록 할 수 없을까 하는 충심을 노래한 시이다.

절재는 안평대군과는 知友와 같은 사이였다. 수양대군 같은 권력욕이 없으며 타고난 문사의 자질을 바탕으로 당시의 한인묵객(翰人墨客)들과 교류하는 안평대군은 실제로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시·서·화에 모두 능해 삼절(三絶)이라 불리었다. 여기의 <몽유도원도> 역시 세속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식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절재는 곧 안평대군의 그러한 취향을 흠모하였던 것이니 같은 시에서 “달인이 신선을 꿈꾼다하니 지극하구나 이 말이여! 자진(子晉:학을 타고 날아갔다는 주령황의 태자. 여기서는 안평대군)은 도기(道氣)가 많아 어릴 때부터 세속을 싫어했네. 언제나 바깥세상 그리워하며 부귀를 뜬 구름처럼 여겼네(達者夢神仙 至哉爲此言 子晉多道氣 甲歲厭塵喧 哀哀物外念 富貴如浮雲)”³⁰⁾라고 하여 대군의 초연한 기질을 높게 평가하였다.

안평대군을 향한 절재의 청안(靑眼)은 다음 시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귀공자로 태어나서
아끼지 않고 베풀다네
맑고 순수한 기질로
하나 들으면 열을 아네
밝은 빛 동쪽나라로부터
환하게 중국까지 비추네
원컨대 날로 새롭게 공을 쌓아
힘을 다하여 밝은 시대 도우소서³¹⁾

이 시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곳은 끝구이다. ‘밝은 시대를 도우소서(補明時)’는 곧, ‘밝은 군주의 시대를 보필하소서’라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현실적 세종대야말로 명시(明時)임에 틀림없었으나, 다음 대인 문종·단종대 역시 맑은 군주의 시대라야 한다는 절재의 염원이 깃들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곧 안평대군의 역할이 그때 긴요하며, 그 실제적인 내용은 ‘보필’이라고 한 것이다.

수양대군은 절재를 비롯한 충직한 신하들이 안평대군을 추대하며 역모를 꾸민다는 죄목을 씌워 무참하게 살해하였거니와, 위 시를 보면 한점 그러한 불계(不軌)의 기미는 없음이 감지된다. 실제로 수양일파의 모함과 날조와는 달리 안평대

군과 절재는 세속의 명리(名利)에 초연하고자 한데서 의기상합(義氣相合)한 것으로써 역모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절재의 다음 시는 위와 같은 추정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이다.

문필 종사의 영광이 비록 중하다고 하나
오히려 또한 떠돌세상 시끄러운 싫다네
나또한 고상함을 흠모하노니
생각은 초가사립으로 돌아감이네
그대는 아마도 나보다 먼저 가서
나를 맞아 술동이나 여러나보이
인생이 몇날이나 된단 말인가
서로 담뱃 취해나 보세³²⁾

한편 선초(鮮初)의 명신(名臣) 절재에서 그의 사후(死後) 300여년이 지난 영조 14년(1738년)에 내려진 시호(諡號)는 충익(忠益)이다.

“몸을 바르게 가져 군주를 받들었으니 충(忠)이요, 사려가 깊고 원대하였으니 익(益)이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³²⁾ 이 시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절재에게 ‘忠’이 가장 비중있게 붙여 불리워진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절(節)’을 거론한다.

“공은 6진을 덮었고 충성하여 3조(三朝)를 도왔으니 한번 죽은들 무엇이 애석 하리오 기상과 절개는 하늘에 닿았도다(功蓋六鎮 忠益三朝 一死何惜 氣節干霄)³³⁾ 하여 절(節)을 들었고, 숙종조에 절재의 죄적을 논할 때 “황보인과 김종서 등은 우리 세조대왕께서 선위를 받을 즈음에 스스로 그 군주를 위해 임직이 반룡부봉(攀龍附鳳)하지 않고 모두 피화를 입고서 아직도 죄적(罪籍)에 있습니다.”³⁴⁾ 하였고, 영조조에서는 절재등이 관작을 추복(追復)할 때 “옛날 태종께서는 정몽주를 죽이고 나서 곧바로 시호를 내려 포상(褒獎)하는 온정을 베푸셨는데, 두 상신(相臣)의 일은 정몽주의 경우와 똑같습니다.”³⁵⁾ 하여 不事二君하는 절의(節義)를 지켜 화를 당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곧 어린 임금 단종을 보필하는 고굉지신(股肱之臣)으로서 왕권 찬탈을 노리는 수양일파와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여로부터 어린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을 군자다운 사람으로 인정하였다. “어린 임금을 의탁할만하며 백리(百里)의 운명을 맡길만하며, 큰 절개에 맞닥뜨려 (그 뜻을) 빼앗지 못한다면 군자다운 사람인가? 군자다운 사람이로다.”³⁶⁾하여 절조 지킴을 높이 인정하였다. 이로 볼 때 절재야말로 충직과 절의를 지킨 군자다운 사람으로 길이 추앙되어야 하며, 오늘을 사는 나약한 현대인에게 변함없는 귀감(龜鑑)으로서 그 존재가 뚜렷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28) 논어에는 올바른 군신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定公問君使臣 臣事君如之何 對曰 君使臣以禮 神事君以忠。”(論語 八佾)

29) “人生匪金石 百歲如電奔 安得拔仙桃 移種紫微垣 叱後三愈兒 萬歲奉吾君” 안평대군이 세종29년(1447) 4월 20일 도원(桃源)을 거니는 꿈을 꾸고, 그 정경을 화가 안견(安堅)을 불러 그리게 하니 곧 <몽유도원도>이다. 이 그림에 당대의 문사 20여명이 시를 붙였는데, 절재는 5언 장편 고시를 지으면서 끝부분을 위에 인용한 시구로 마감하였다. 세번이나 흠친 아이는 동방삭(東方朔)을 가리키며, 그는 한 개를 먹으면 1천 甲子를 산다는 선도를 3번이나 흠쳐먹고 3천 甲子를 살았다한다.

30) “天生貴公子 不惜賦予私 氣清質亦粹 一聞能十知 光輝自大東 燁燁照京師 願加日功陳力補明時”(實記, 「敬呈匪懈堂」)

31) “翰墨榮雖重 猶且厭塵喧 余亦慕高爽 意欲歸衡門 君歸倘先我 邀我開酒尊 人生餘幾日 相與醉醺醺”(實記, 「贈崔德之歸南鄉」)

32) “同年十一月十一日政事 諡號望左議政 金宗瑞 忠益忠毅忠莊 以忠益落點 危身奉上曰忠思慮深遠曰翼”(實記, 「戊寅贈諡致祭傳教」)

33) 實記, 卷三, 「招魂閣春秋文」

34) 숙종실록 45년 4월 30일조 기사 참조.

35) 영조실록 22년 12월 27일조 기사 참조.

36)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弧 可以寄百里之命 臨大節而不可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論語秦白)

芳春亭

종 목 : 문화재자료 209호
 명 칭 : 해남방춘정(海南芳春亭)
 분 류 : 누(정).각
 지정일 : 1999. 11. 20
 소재지 : 전남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422-1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 : 사유

방춘정은 순천 김씨가 강학소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가르치던 정자이다.

건물 내부에서 발견된 기록에 따르면 崇禎記元後 二百四十八年 辛未 三月 十九日 巳時 堅柱 初一日 巳時 上樑午坐 午向이라는 上樑文이 종도리 및 장여에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고종 8년 辛未 (1871)에 중건 하였음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3칸이나, 양쪽에 지붕을 덧달고 그 아래로 1칸씩 방을 만들어서 앞면이 5칸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해남 방춘정은 원래 모습과 품격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옛 격식을 갖추고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건물이다.

1. 고종 8년 서기 1871년 重建
2. 서기 1999년 11월 20일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지정 제209호
3. 2000년 12월 補修

芳春書院

芳春書院 祭享

癸未 二千三年 四月八日(陰 三月 七日)

本 書院 祭享은 道 儒林 行事로 執行하며 本 孫은 祭物을 準備하오며 道內 各 鄉校 典教를 歷任하셨든 士林들로부터 芳春書院 任員을 選定하오며 任期는 二年 이며 院長 一人, 道掌議 二人, 道色掌 二人, 鄉掌議 二人, 別有司 一人은 本孫으로 構成 運營하여 왔으나 近世에 이르러 豫算관계로 道掌議 道色掌 鄉掌議를 각 一人으로 減縮하여 祭享을 모시고 있는 바 癸未 二千三年 四月 八日 (陰 三月 七日) 行事는 首獻 文在國, 亞獻 吳宗祿, 終獻 李聖在, 祝 金容得, 執禮 尹基奉과 其外 枉臨하여 主賓 前, 現職 任員과 本郡 鄉校 金丁鎮 轉校 朴千何 儒道會長 여러 前任 轉校 출신의 儒林과 本 中央會 金鍾植 會長任을 비롯한 任員진과 百名에 가까운 大邱, 서울, 忠淸地域의 宗親 參拜로 行事를 盛況리에 祭享하였으며 芳春書院 任員의 任期 滿了로 아래와 같이 任員 改編하였으며 芳春書院 金贊洙는 年老 하시고 健康이 如意치 않아 本職을 사양하므로 不得已 改編 後任者를 選定하고 金贊洙 前任 別有司에서 義務遂行中 芳春書院의 史蹟守護 管理와 우리 順天金門의 위상 정립에 功이 많아 芳春書院에서 功勞牌를 授與하였음.

癸未 二千三年 四月八日(陰 三月七日)

新 任 員			舊 任 員		
院 長	文在國	南平	院 長	金定鎮	
道掌議	金中洙	天安	道掌議	文旭鉉	
道色掌	吳宗祿	同福	道色掌	朴春燮	
鄉掌議	朴來源	務安	鄉掌議	朴千何	
別有司	金正泰	本孫	別有司	金贊洙	本孫

三相祠 沿革

本 三相祠는 숙종 24年 서기 1698年(단기 4031年) 本 郡 儒林들로부터 三相祠를 세워 月潭 襄景公 承暉, 節齋 金宗瑞 북저 김유 三정승을 추향하는 祀宇인바 高宗 戊辰 1868年 흥선대원군의 書院撤去令이 내려졌으나 本 三相祠만은 면하게 되었음은 다른곳에 疊設첩이 없고 오직 芳春洞에만이 모셔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후 몇차례의 거듭된 撤去令으로 撤回되었으나 高宗 光武 5年 辛丑 1901年 畿湖에 士林의 通文으로 檀所를 設置하여 享祀를 하는데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릴 때는 享祀節次에 悶한 마음 形容할 수 없어 全羅南道 海南儒生 尹觀夏, 李思豊, 閔觀鎬 等 百六十七人이 외람을 무릅쓰고 當時 禮曹判書 李根教 閣下에게 呼訴하니 閣下에서 三先生의 忠義와 潭陽公의 節義를 特別히 들어서 위로 階下에 올리니 祠宇를 다시 이룩하여 朝家의 典禮家를 빛나게 하며 一面으로 士林의 마음을 卹하게 하며 芳春書院으로 己未 1919年(단기 4252年) 海南 儒林과 子孫들의 뜻을 모아 重建 每年 祭享을 모시고 있다.

芳春書院



▲삼상사 전경 전남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芳春沿革

I. 방춘마을은 해남읍에서 동북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하여 백제(百濟)의 고서이현(古西伊縣) 통일신라(統一新羅)의 고안현(固安縣) 고려(高麗)의 죽산현(竹山縣)에 속한 땅으로 조선조(朝鮮朝)에는 별진역(別津驛)을 중심으로 발전한 곳으로

조선조(朝鮮朝) 태종(太宗) 9년 죽산현(竹山縣)이 해진현(海珍縣)의 속현(屬縣)이 되고 世宗9年(1437) 해남현(海南縣)이 복구(復舊)하자 거기에 딸린 땅이 되었다.

임란(壬亂)후에 현 면소재지 성진리(星津里) 구별진역(舊別津驛) 법곡리(法谷里)를 비롯 22개 동리를 해진현(海珍縣) 비곡면(比谷面)으로 방춘, 여수를 비롯 19개 동리는 무안군(務安郡) 淸溪面으로 靈巖郡 昆二始面의 선산, 원진, 신주의 각 일부를 합하여 15개리 31동리로 구성 군면폐합으로 청계면(淸溪面)의 谿자와 비곡면(比谷面)의 곡(谷)자를 연계 계곡면(溪谷面)으로 개편(改編) 되었으며 동으로는 서기산(瑞氣山)을 경계로 강진군 성전면, 강진을 도안면 남으로는 옥천면, 마산면 북으로는 650M의 흑석산을 경계로 영암군 학산면, 미암면 이군(二郡) 칠면(七面)에 인접하고 있다.

II. 방춘(芳春)마을은 본래 무안군 청계면이었으며 해남읍에서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650m의 흑석산(黑石山)하에 총면적 5.820km이며 남은공(南隱公) 김효우(金孝友)는 세종(世宗) 32년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문학(文學)과 덕망(德望)이 탁월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았으며 담양도호부사(潭陽都護府使)직에 봉직(奉職) 중 1453년 계유난(癸酉亂)으로 단종조(端宗朝) 2년 족조(族祖)이신 좌의정(左議政) 절제공(節肅公) 김종서(金宗瑞)의 피화를 접하고 북향 삼배 갓끈을 풀고 낙남(落南), 1456년 정착하게 된 곳이 흑석산 아래 청계(淸溪)이며 꿈은 이곳에서 마의초식(麻衣草食) 하면서 우물을 파고 忠과 義, 孝를 상징하는 소나무와 동백나무를 심고 후학에 전념하였으며 순천김씨의 동쪽마을이 되었다.

구전(口傳)에 의하면 이곳 흑석산줄기 힘있게 뭉쳐진 발우산(鉢盂山) 봉우리가 김(金) 자형으로 영원한 순천김씨의 터전이라고 하며 발우산 동쪽은 청룡산(靑龍山) 서쪽은 황소가 꿇고 있는 형이며 소머리 형의 곳에 정자나무가 있어 이곳을 쇠정지라고 하며 화창한 봄날에 뒷동산의 푸른 동백나무에 빨간 동백꽃으로 덮혀 그 아름다움의 자태를 형용할 길이 없어 마을이름을 방춘(芳春)이라 이름지었다고 하며 또한 이곳의 터가 방죽이었다고 하여 방죽안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마곡, 여수, 장산, 춘정, 연당 마을 등 방춘의 일원이 順天 金氏 집성촌으로 歷代 巨儒 名師는 物論 海外 유학한 數없는 博士와 代代로 數名의 律士가 끊어지지 않고 主要人物들이 배출된 集姓村이다. 1950년 韓國 東란으로 100여호와 동족(同族) 약 600여명이었지만 422번지 방춘서원과 463번지 김상우, 625번지 김재욱 406번지 김명수의 집 계 4호만 남고 전부 소각당하였으며 20세부터 50세까지 약 1대가 서울,

광주, 목포를 비롯 전국 곳곳에 흩어졌으며 현재는 35호 50여명만이 옛터를 수호하고 있다.

III. 유적으로는

가. 방춘서원(三相祠) 방춘리 422번지에 位置

1698년 (순조24)에 세워 1452(文宗2年) 좌의정 절제 공조 김종서 배향 1423의 정부 검교좌상 양경공조 김승주와 1636년 仁祖 14년 영의정 북지공 조 김류를 1781년 추배하였으며 1808년 (순조8) 삼상사로 세움, 1868(고종5년) 훼손 1901년 설단 1903년 세종 33년(1451년) 담양도호부사 남은공조 金孝友 추배 1919년 방춘서원으로 증건하였다.

나. 방춘정,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422번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09호

이정사는 순천김씨의 강학소이며 조선초기 임양이후 세거하면서 여러 가지 향촌활동을 하였으며 향토문화의 전당으로 자리 잡았다.

최초 건립년도는 알 수 없으나 1871년에 고향 김정순(金鼎淳), 김문익(金文翼) 등이 주도하여 강당의 옛터에 증건하였으며 비교적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복조 건축년대가 높고 건축년대를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 품격을 지닌 건물이다.

지붕의 3개소에서 확인된 강희(康熙6년 명의망와) 기록을 통하여 현종 8년(1667년)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건물의 건립과 직접 연관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 마을 동북쪽 흑석산 동북쪽 골짜기에 절이 있었는데 건물은 없어지고 절터만 남아있다.

라. 방춘서원의 서쪽 약 180m 지점 쇠정자에 입석(立石) 1기

마. 면민 나무로 지정된 높이 21m 둘레 4.7m 수령 700년의 팽나무 정자

바. 군 보호수 높이 20m 둘레 4.5m 수령 350년의 느티나무 1그루

사. 서원의 동쪽 청룡산(靑龍山)에 청량사(靑涼寺) 등록사찰(화엄종계)

이상은 해남군에 등록된 유적이다.

※ 전설에 의하면 방춘마을 동북쪽 650m 흑석산 9부 능선에 깎아 세운 듯 서있는 부삼바위(일명 비석바위)가 있는 바 모자의 채양모양처럼 약 5m 정도 나와 있는 바위아래 10여명의 장인이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이며 날씨가 가물어도 바위 끝에서 끊이지 않고 일정하게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이 물을 입으로 받아 먹으면 병도 낫고 생산을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여 약물이라고 사시절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며 부정을 지지른 사람이 오면 물방울이 다른 곳으로 떨어진다는 전설이다.



▲방춘서원 묘정비



▲남은공 묘역 전남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 산32

우리의 世居地 春井마을

춘정 마을은 약700여년전 高麗 三別抄亂때부터 형성되어 내려왔으며 그 전후는 잘 모르나 약 150여년전 37世祖 光泌 兄弟가 淸溪面 集成村에서 독립하여 黃原面 春亭里(현재는 黃山面)에 터를 잡고 그후 順天金氏 70호가 제2의 집성촌을 이루워 살다가 産業時代의 물결에 따라 이곳저곳 도시를 찾아 흩어지고 이제는 연당리에 12호 춘정에 겨우 8호가 命脈을 유지하고 있으며, 역시 溪谷面 先山下에 모셔온 32世祖 韓자 할아버지와 37世祖 光泌은 先墓祠에 光珠는 內山 舟岩山에 모시고 33世祖 時자 敬부터 41世祖까지는 春亭里 虎岩山 隱德祠에 각각 配享하고 있다. 日帝때 名聲을 날린 磴山(鎭山)이 繁昌되자 公산을 찾아온 各姓氏들이 混居하여 지금은 數10個姓이 모여살고 있는데 옛날의 이 마을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오직 육지로 연결된 通路라면 마을 뒷산인 호암(虎岩)의 꼬리가 아슬아슬하게 육지와 길을 이어 주고, 어머니 품처럼 마을을 감싸 안아 北風을 막아 주고 있으며, 마을 앞 東南方에 위치한 부어(負兒)산은 마을을 옹고 있고 마을 正南方에는 안산(案山)이 있어 風水學的 明堂으로 양반마을이라 자부하며 바다와는 인연을 끊고 오직 농사에만 매달린 보수적 풍습이 이어져 지금까지도 구태의연한 농사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심은 참으로 溫厚합니다. 특히 他鄉살이를 하는 젊은이들의 향수(鄉愁)를 자아내는 虎岩山頂의 老巨松과 鼎자允 할아버지 墓前廣場에서 "집뽕"을 차고 동백나무에 올라 竹 대롱으로 꿀을 빨아먹던 추억(追憶)은 누구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 지금의 춘정(春井)과 성산(磴山)마을 사이에 물길을 따라 드러온 옛장터가 있어 이곳을 장안리라 부르고 있으나, 물길을 모르는 춘정 사람들은 오직 유교(儒敎)를 숭상하면서 대동계와 품앗이 등의 歲時 풍속을 지키고 있으며, 예전에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지금 조산(潮山)이라 불리는 동산은 바다 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風光이 秀麗하여 여기에 亭子를 짓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으며 정자열 약50미터의 "농어뱀"이라 불리는 논 옆에는 겨울에는 길이 무럭무럭 솟아 따습고, 여름에는 어를처럼 차가운 육수가 바다에서 솟는 신기한 샘수샘이 있어 우수영 수사등 각 고을 선비들이 물길을 따라 배로 이 정자를 찾아와 시(詩)를 겨누며 한가한 여가를 즐겼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춘정(春井)이 아니라 춘정(春亭)이 었다는 것이 海南 문헌집에 收錄되어 있고, 춘정 원흥(原欽)이란 詩가 있어 여기 소개하면...

춘정 원흥(春亭原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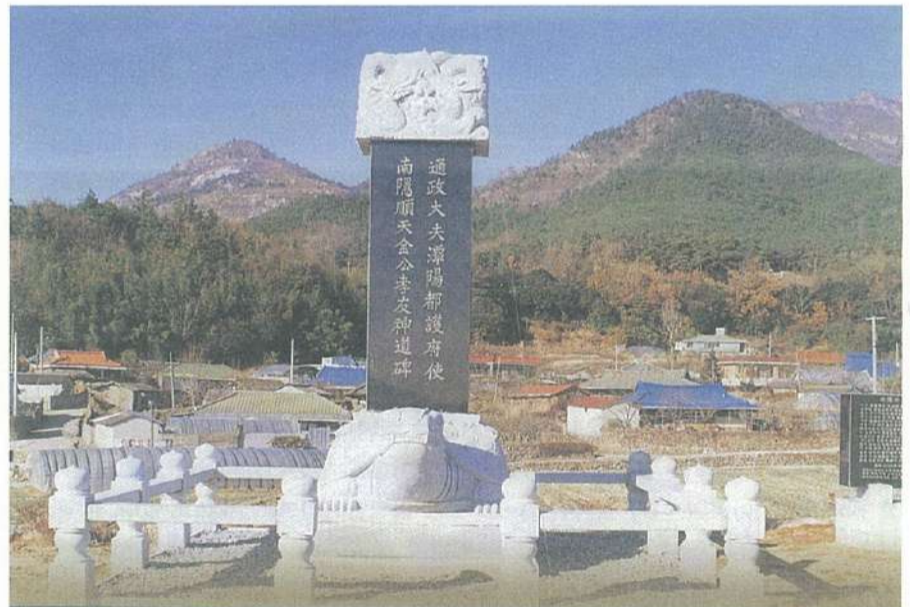
有此主人有此亭 別般排置畫難形 擁村竹籬속涼雨 放水松檜錯落星
太守玄歌春鳥樂 將軍鼓角暮山腥 郵官獲識烟霞趣 除却奔忙保性靈
碧沙 李察訪 謹稿(년대미상 200년전으로 추정)

"여기 정자가 있고 주인이 있네, 별반 배치는 그림으로도 형언하기 어렵고, 마을을 품고 있는 대나무는 시원한 빗 소리를 내는 듯 하며, 물위에 떨어지는 별(유성)은 소나무를 흰히 비치네, 봄새가 부르는 노래는 태수를 즐겁게 하고, 장군의 호각 소리는 저무는 산을 날 개이게 하는데, 우관(연락관)은 안개나 연기처럼 오락개를 빨리 식별하니, 성령을 보존하기 위하여 잠시 분망함을 잊은 듯 어찌하리오"... 이렇듯 마을이 아름다워 우수영의 수사(水使)와 각 지방 수령들이 모여 시(詩)를 겨누고 碧沙 李察訪이 장원을 하였다는 이 시의 현관은 마을의 보물로 간직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역시 마을 앞 바다에는 高麗三別抄의 비룡호(飛龍號)가 드나들었다는 바다 위의 비룡바위에서 "개옹"을 따라 조금 드리오면 감투나루가 있고, 이곳은 삼별초(三別抄)의 王宮(용장성)에서 조금 들어오면 감투나루가 있고, 지금도 개와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東洋에서 가장 우수한 金鑛이 마을 뒤 노루목 산에서 개발되고 마을 앞에는 유명한 "성산광산"이 자리잡고 있어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 하답니다.

우리 順天金氏의 인맥(人脈)으로는 李朝末 풍원(黃原면장)을 지낸 39世祖 贊자 翼자를 原始로 하여 醫學博士와 機械 및 電氣工學博士 등 여러 名師를 誕生시키고 마을 史로서는 代代로 黃山面長이 이 마을에서 배출됨으로 마을 젊은이들은 敬老정신이 돈독(敦篤) 하답니다.

2005. 10. .

中央宗親會 副會長 春亭 金 相 默 謹稿



알리는 말씀



順天金門 일가들의 家庭에 항상 健康과 幸運이 充滿하고 하시는 事業 日就月將 하시기를 祈願 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2006년 丙戌年을 맞이하여 新年賀禮 인사 말씀을 宗報를 이용하여 주시면 宗報 發行에 큰힘이 되겠습니다.

- 대상: 1) 개인
2) 법인 및 개인회사
3) 각 파종회 및 지역 종친회

2005년 12월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5년 10월 7일 ~ 2005년 12월 26일

김길연	*납5년10월26일	부산 동구	김중호	*납5년10월25일	강원 동해
김용학	*납5년10월27일	울산 중구	김영일	*납5년10월24일	전북 정읍
김홍인	*납5년10월27일	대구 동구	김길연	*납5년10월25일	전남 구례
김완희	*납5년10월27일	서울 동작	김동수	*납5년10월31일	경기 이천
김동직	*납5년11월11일	서울 양천	김중해	*납5년10월25일	경북 안동
김진	*납5년11월03일	대구 북구	김방윤	*납5년10월25일	경북 포항
김진석	*납5년10월27일	전남 해남	김원재	*납5년11월09일	서울 마포
김용득	*납5년11월18일	전남 나주	김윤수	*납5년10월28일	서울 노원
김길옥	*납5년10월31일	서울 관악	김공원	*납5년10월11일	광주 서구
김준현	*납5년10월24일	서울 영등포	김호연	*납5년12월14일	서울 용산
김해재	*납5년10월28일	경남 마산	김병혁	*납5년12월21일	부산 영도
김봉열	*납5년10월28일	서울 구로	김상실	*납5년06월29일	전남 해남
김동신	*납5년10월31일	경기 용인	김태수	*납5년07월04일	전북 전주
김철수	*납5년11월10일	대구 북구	김상울	*납5년08월29일	서울 강동
김성희	*납5년10월26일	대구 달서	김장환	*납5년06월10일	충남 보령
김두원	*납5년10월26일	경북 경산	김대석	*납5년07월18일	충남 보령
김남규	*납5년10월24일	경북 안동	김동원	*납5년10월05일	서울 구로
김동파	*납5년11월23일	경남 진해			
김두진	*납5년10월24일	서울 동대문			
김백연	*납5년11월28일	광주 서구			
김복귀	*납5년11월03일	충북 충주			
김상근	*납5년11월01일	충남 천안			
김상민	*납5년10월28일	전남 해남			
김상희	*납5년11월03일	광주 동구			
김석연	*납5년10월25일	대구 달서			
김석영	*납5년10월27일	전남 나주			
김성희	*납5년11월02일	경기 파주			
김순흥	*납5년10월28일	경기 평택			
김영환	*납5년12월02일	경남 합천			
김인택	*납5년10월24일	서울 동대문			
김상기	*납5년11월30일	강원 춘천			
김지성	*납5년11월02일	충남 보령			
김진오	*납5년10월24일	강원 삼척			
김희훈	*납5년11월11일	서울 송파			
김동주	*납5년10월25일	서울 영등포			
김동길	*납5년10월24일	서울 성북			
김동영	*납5년10월24일	서울 강동			
김동필	*납5년10월25일	서울 영등포			
김상용	*납5년12월06일	인천 계양			
김일호	*납5년11월15일	전북 임실			
김종구	*납5년10월28일	전북 전주			
김주일	*납5년10월24일	전남 보성			
김택수	*납5년10월27일	전북 임실			
김한수	*납5년11월28일	전북 순창			
김원희	*납5년11월02일	경기 화성			
김광석	*납5년11월18일	전남 무안			
김동해	*납5년12월07일	경기 용인			
김상심	*납5년10월28일	경기 고양			
김소환	*납5년10월25일	전북 익산			
김성훈	*납5년10월31일	경기 용인			
김이석	*납5년10월07일	서울 영등포			
김채영	*납5년10월27일	전북 익산			
김태연	*납5년10월31일	경기 용인			
김동철	*납5년10월17일	서울 강서			
김영열	*납5년10월26일	강원 횡성			
김광원	*납5년10월27일	부산 연제			
김형욱	*납5년11월07일	서울 영등포			
김문환	*납5년10월26일	서울 영등포			
김명석	*납5년11월11일	부산 해운대			
김수홍	*납5년11월10일	대구 수성			
김재연	*납5년11월21일	경기 광주			
김창주	*납5년10월31일	경기 평택			

대 의 원

김동성	*납5년11월08일	경북 안동
김수영	*납5년11월29일	충북 청주
김용석	*납5년11월29일	경기 김포

부회장단

김두원	*납5년11월28일	광주 동구
김지섭	*납5년11월02일	충남 보령
김철우	*납5년10월20일	경북 안동

운영위원

김동수	*납5년10월27일	전남 순천
김형근	*납5년12월07일	경기 고양

이 사

김동영	*납5년10월25일	대구 달서
김기연	*납5년11월04일	충북 청주
김상우	*납5년10월28일	서울 관악
김강영	*납5년10월26일	경북 문경
김안천	*납5년11월08일	경기 수원
김광수	*납5년10월28일	대구 서구
김영규	*납5년10월21일	경기 안산

무 명 인

*납5년10월25일	농협/역삼
*납5년10월27일	농협/진량
*납5년10월28일	새마을/포천남
*납5년10월31일	농협/충주
*납5년10월26일	농협/벽제
*납5년10월26일	농협/고양
*납5년10월26일	새마을/신대
*납5년10월31일	정보/영암
*납5년11월07일	농협/서산
*납5년11월07일	농협/송학
*납5년11월24일	조흥/경주

용기에 대하여...

모험을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만이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능성,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Change the Life!

Korea Life
대한생명

